KDB대우증권

Bring Your Own Device

기업용 보안 시장, BYOD로 풀어내다

Industry Report
2013. 12. 12

SmallCap
서승우
02-768-3080
seungwoo.seo@dwsec.com

국내 BYOD 시장은 2014년부터 본격 개화 예상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등장, 보급률 확대 및 인터넷 환경 개선 등으로 인해 IT consumerization (IT 소비재화; 소비자 시장에서 먼저 사랑받고 대중화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업 내부로 확산되는 현상)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직원 개인의 자율 또는 기업 일괄 선택을 통해 상당 부분의 모바일 기기가 업무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환경을 반영하여 2014년에는 BYOD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명확한 개념 부재와 불안한 보안 문제로 방치됐던 BYOD 관련 시장이 강력한 보안 기술 및 환경 도입과 함께 본격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향후, 무선인터넷 환경의 확산과 함께 모바일오피스를 위시한 스마트워크 환경이 빠르게 자리하면서, BYOD 시장 성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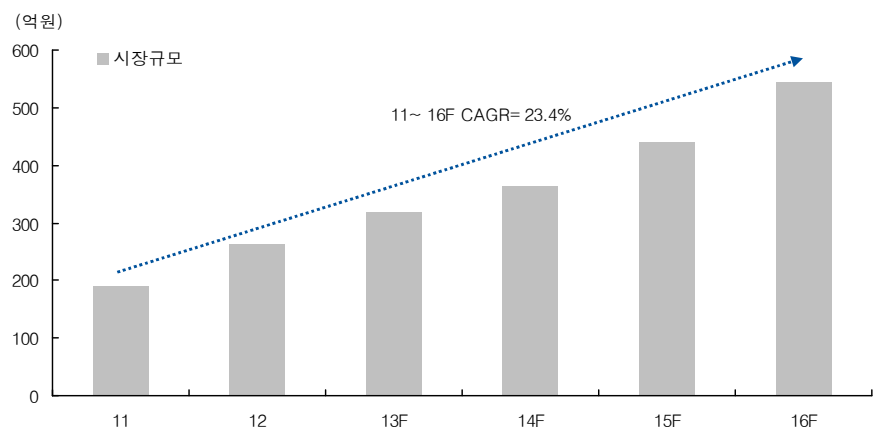
전방 업체의 보안 모듈 탑재에 따른 BYOD 수혜주에 주목

공공부문 보안시장의 제한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용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보안업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4년 기업용 보안시장은 대형 휴대폰 제조사의 신 보안 모듈 탑재에 따라 BYOD 시장이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같은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이미 차세대 모바일 보안 모듈을 탑재하기 시작했으며 SK텔레콤과 VMware 등은 적극적으로 MDM 및 MAM 솔루션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B2B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모바일오피스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를 뒤로 하고 모바일 보안업체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보고서('스마트 시대를 프로그래밍하다'; 2013.9.10)에서 언급한 솔라시아(MDM, MAM 보안플랫폼을 개발중인 것으로 추정)와 시큐브(MDM 및 정보보안 전문업체) 외에 데이터보안 전문업체인 파수닷컴, 모바일보안 전문기업 라온시큐어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국내 모바일보안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KDB대우증권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정보보안 시장은 민수 시장이 이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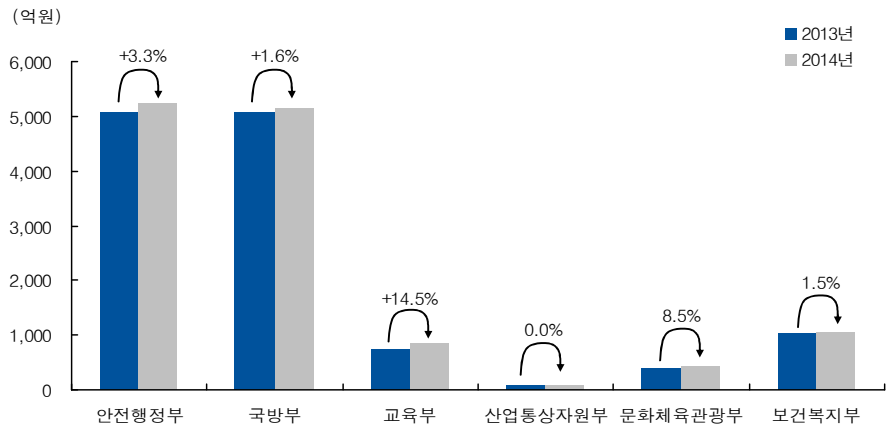
정부는 2013년 6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율을 현행 8%에서 2014년에 10%, 2017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지난 보고서('스마트 시대를 프로그래밍하다'; 2013.9.10 발간)에서 정부 수혜가 예상되는 정보 보안회사에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그 이후인 9월 27일에는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신설 이후 최초 편성한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 규모는 13조5746억원으로, 올해 총 지출 12조8332억원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2014년도 미래부 예산안은 창조경제 조성 지원, 미래 대비 R&D 투자 확대, ICT 신산업 육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으나,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안 규모는 약 3조3천억원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 인상(2013년 8% → 2014년 10%)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규모 확대, 보안 인력 고급화 등으로 실질 유지보수 예산 규모가 정체된 상황에서 요율 인상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및 사업분야 간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예산안으로 공공부문 보안 시장 규모는 제한적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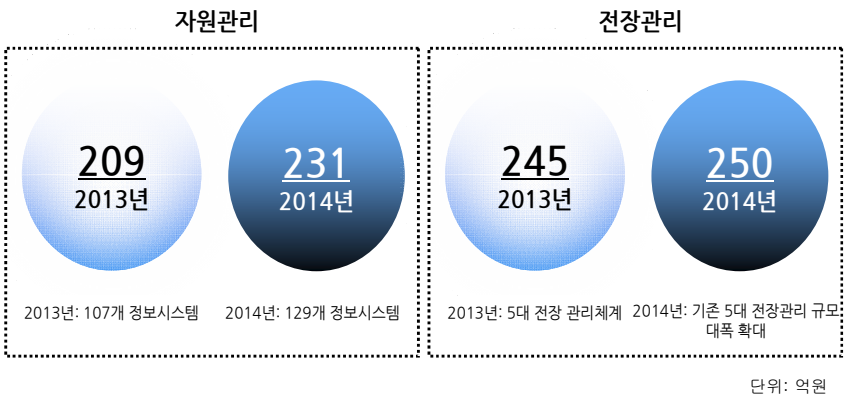
따라서, 2014년에는 공공부문의 안정적 수주를 기본으로 금융, 통신을 비롯한 민수부문과 해외 사업부문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정보보안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보안과 관련하여, 전방업체인 대형 제조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거나 사업 제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

그림 1. 2014년도 주요 정부부처 정보화 예산 현황



자료: 중앙부처, 전자신문, KDB대우증권

그림 2. 2014년 국방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예산



자료: 국방부, 전자신문, KDB대우증권

국내 BYOD 시장, 2014년 개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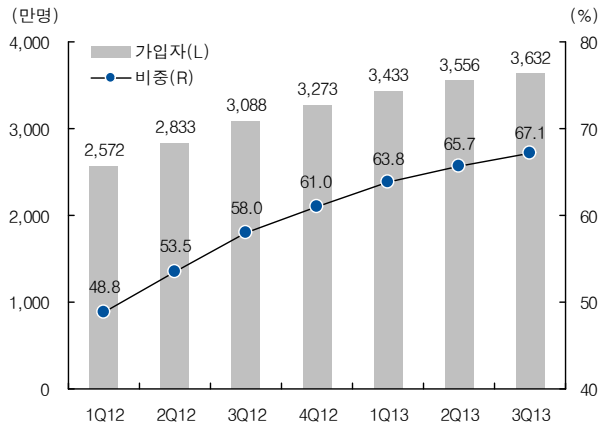
2013년 3분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632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67.1%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16~64세 성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3년 1분기 기준 73%까지 확대됐다. 개인 평균 모바일 기기 보유 수도 이미 2.4개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계기로 66.2%가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했으며, 17.3%의 스마트폰 유저들이 학업이나 업무상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이용 현황으로는 모바일메신저 89.2%, 이메일 75.9%였다. 메일 및 메신저 등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모바일 장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무 형태로 평가 받고 있다.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등장, 보급률 확대 및 인터넷 환경 개선 등으로 인해 IT consumerization (IT 소비재화; 소비자 시장에서 먼저 사랑받고 대중화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업 내부로 확산되는 현상)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직원 개인의 자율 또는 기업 일괄 선택을 통해 상당 부분의 모바일 기기가 업무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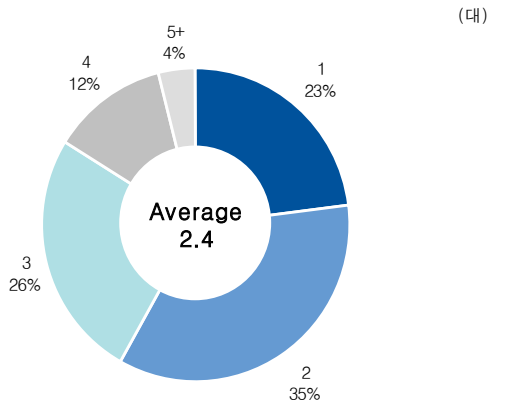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환경을 반영하여 2014년에는 BYOD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명확한 개념 부재와 불안한 보안 문제로 방치됐던 BYOD 관련 시장이 강력한 보안 기술 및 환경 도입과 함께 본격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향후 무선인터넷 환경의 확산과 함께 모바일오피스를 위시한 스마트워크 환경이 빠르게 자리하면서 BYOD 시장 성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림 3.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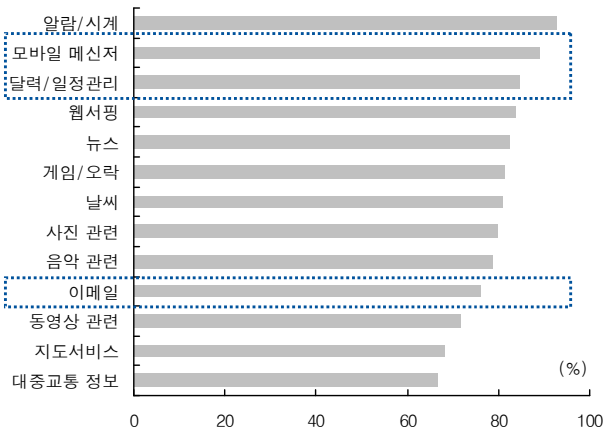
자료: 통신업계, 미래창조과학부, KDB대우증권

그림 4. 아태지역 개인 평균 2.4대 모바일 기기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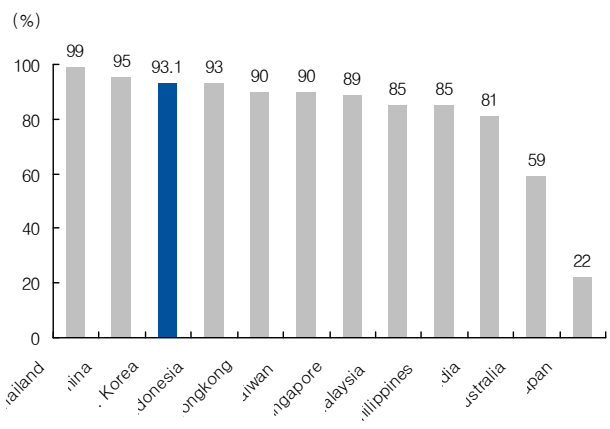
자료: Acorn Research, KDB대우증권

그림 5.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현황 (복수응답)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 KDB대우증권

그림 6. 한국의 BYOD 비율은 93%로 아태지역 세번째



자료: Acorn Research, KDB대우증권

직원 소유의 모바일기기가 직접 업무에 활용 – 문제는 보안

BYOD(Bring Your Own Device)란 회사에 개인 소유의 디바이스를 가져와서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회사 내 BYOD가 실현될 경우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57.1%),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연속성 증대(49.2%), 비용 절감(44.4%) 등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

BYOD의 긍정적 효과들로 인해 국내 IT 종사자 대부분 BYOD 대중화는 머지 않아 실현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 이견을 보였는데, 최근 업데이트되는 보안 환경을 감안할 때 BYOD 시대는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Gartner는 2017년까지 전체 기업의 50%가 직원들의 개인 모바일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이 BYOD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최대의 핵심 이슈는 보안이다. IT 종사자들은 BYOD 도입시 가장 큰 어려움을 정보보안(29.4%가 응답)으로 여기면서도 BYOD 구축 시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것(36.2%가 응답)과 핵심 요소(33.7%가 응답)로 보안 솔루션을 꼽았다. 악성 코드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기업 데이터 유출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강력한 보안 정책으로 회사의 BYOD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BYOD 위험 측정 조사에 따르면 강하게 BYOD 정책을 통제하는 기업의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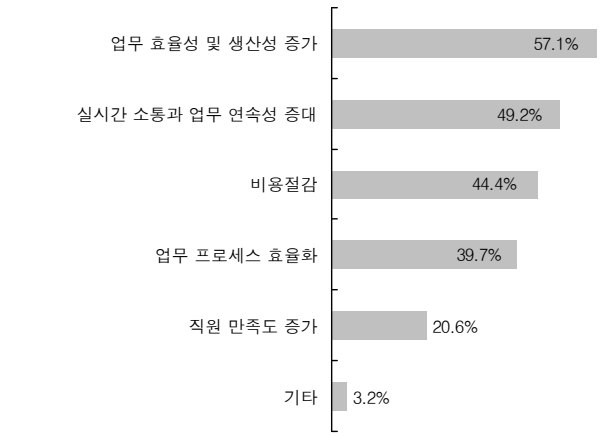
반면,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전문업체인 포티넷의 최근 조사자료(2013.10.31)에 따르면,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했을 때 51%의 직원이 정책을 위반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 20개국 21~32세 개인용 스마트기기를 보유한 정규 직원 3,200명 대상 설문). 또한, 2013 NORTON REPORT에서는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 경험자가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38%에 이르고, 스마트폰을 도난하거나 분실한 사용자는 27%에 달해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의 보안 IQ 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보안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MDM(모바일 단말관리)은 스마트기기 전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기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따른다.

따라서, 2014년은 BYOD가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모바일보안이 끊임없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방의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사 등은 회사의 정책 실현과 직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상충된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솔루션 개발을 완료했거나 계속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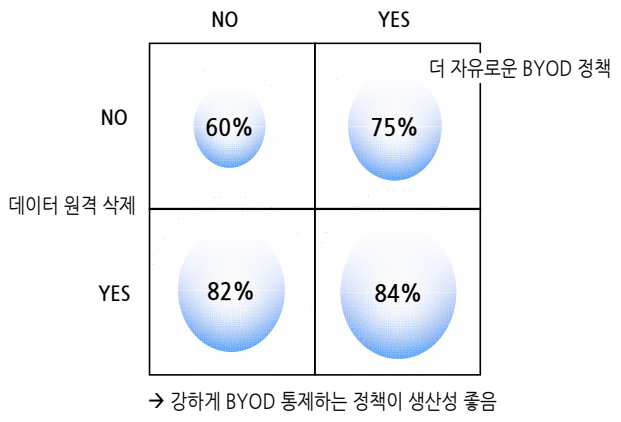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녹스(KNOX), LG전자의 LG게이트 등은 모바일 단말 자체를 관리하는 MDM을 벗어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및 모바일 가상화를 관리하는 MAM 보안 모듈로 알려지고 있다. MAM은 기업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레벨을 제공하는 동시에 컨테이너를 통한 개인 영역을 함께 제공한다. 한편, SK텔레콤도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리 솔루션을 출시했다.

그림 7. BYOD의 긍정적 효과(복수응답)



자료: 데이터넷(2012.09), KDB대우증권

그림 8. 평균 이상 생산성 기업 비율



자료: 에버딘그룹, IT world, KDB대우증권

BYOD를 위한 차세대 보안 솔루션, 스마트폰에 탑재되기 시작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은 IT부서가 스마트 기기의 환경 설정, 보안, 모니터링, 데이터 삭제 등을 해주는 모바일 단말 관리 솔루션이다. 최근 모바일 보안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으며 BYOD 정책에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분실로 인한 정보 유출, 카메라 촬영, 음성 녹음, 저장 매체 등을 활용한 의도적 정보 반출, 비 인가자 시스템 접속,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 반출, 업무용 디바이스의 비 업무용 사용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의 보안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관리 문제로 MDM 솔루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회사에서 개인 단말을 직접 통제하는 것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함께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원하는 보안을 충족하는 동시에 스마트 기기 소유자 개인의 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의 요구가 강해졌으며, 최근 IT부서가 기기 자체가 아닌 특정 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만을 보안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솔루션 MAM이 등장했다. MAM(Mobile Application Management)은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및 모바일 가상화를 통해 스마트기기 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플랫폼)에 대한 선택적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모바일 가상화는 스마트 기기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무선 기기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나 가상 컴퓨터(VM; Virtual Machine)를 실행하는 기술(컨테이너 생성 구현 방식)로 크게 네트워크와 스마트기기 단에서 업무 영역과 개인 영역의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한다.

MAM 솔루션을 담은 대표적인 제품은 삼성전자의 녹스(KNOX)다. 녹스는 제조사 기반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간의 최적화된 연동을 통해 하나의 솔루션으로 작동되며,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데이터 보안 등급을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즉, 업무 공간과 개인 영역이 엄격히 구별되며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녹스의 탑재는 안드로이드 버전 4.3부터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공식적으로 갤럭시 노트3에서 우선 사용 가능하고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S4 등으로 배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그동안 블랙베리 OS와 iOS에 비해 보안 측면에서 우려됐던 것이 사실이나 미국 국방성의 녹스 승인(미국 정부 업무에 사용 가능)을 계기로 공공기관 및 기업용 점유율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녹스는 2014년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고유 운영체제인 타이젠의 모바일 보안 첨병으로 나서 사용자 확대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구현 방식

	구현 방식
Application-neutral Container	- 어플리케이션 wrapping 방식 -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모바일 정책이 포함된 2진 바이너리를 추가 - Application-specific Container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움
Application-specific Container	- 특정한 컨테이너를 생성 - 컨테이너 개발사는 컨테이너 내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SDK 제공 - 스마트 기기 사양에 따라 컨테이너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Virtual Container	1. 모바일 VDI/Hybrid VDI - Mobile VDI: 어플리케이션 구동과 데이터 저장을 서버에서 수행 - Hybrid Mobile VDI: 오프라인 단말 내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저장 허용 2. Type 1 Hypervisor (단말 제조사 중심) - 모바일 단말기 내 VM 운영 - Host H/W에 직접 적용하여 동시에 여러 종류의 OS 구동 가능 3. Type 2 Hypervisor - OS 최상단에서 VM 운영 (S/W 방식 VM) - 모바일 OS, 단말 제조사, OS 버전 등에 영향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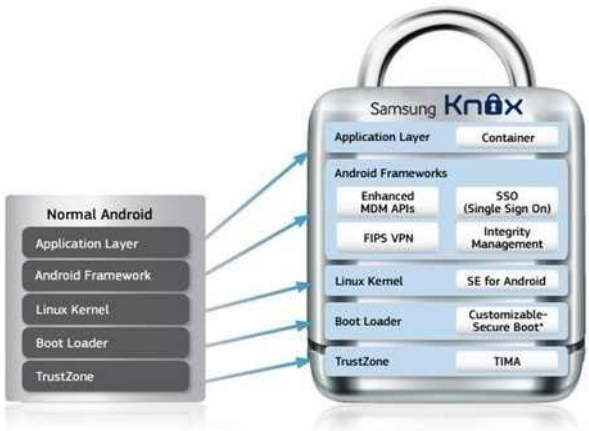
주: Virtual Container 방식은 다시 3가지 방식으로 구분
VDI(Virtual Device Interface): 사용자와 실제 기기의 위치를 분리VM(Virtual Machine): 가상 컴퓨터
삼성전자의 녹스(KNOX)는 Type 1과 Type 2의 중간 방식으로 추정되며 iOS는 컨테이너 방식만 가능
자료: Gartner, Technology Overview of Mobile Application Containers for Enterprise Data Management and Security, 2013.02

그림 9. 모바일 보안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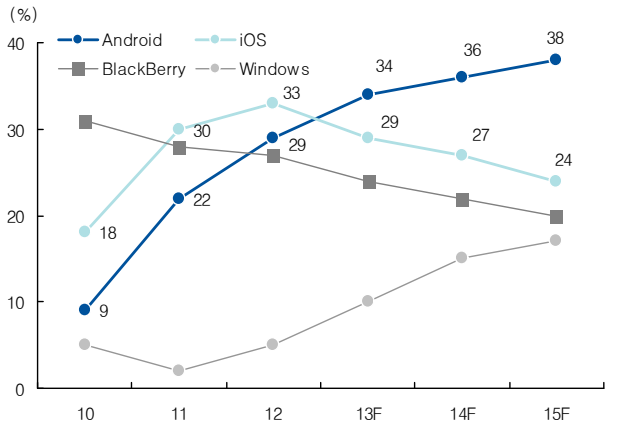
주: MDM(Mobile Device Management): 모바일 단말 관리 플랫폼, MAM(Mobile Application Management):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및 모바일 가상화, MCM(Mobile Contents Management): 클라우드형 데이터/문서 제공 및 Paperless 구현, 사용자포털: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단말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 구현, * 현재 MDM을 걸쳐 MAM 단계가 실현되고 있으며 MCM은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
자료: SK텔레콤, KDB대우증권

그림 10. 삼성전자 안드로이드용 보안기술 녹스 개념도



자료: 언론

그림 11. 운영체제(OS)별 업무용 스마트폰 점유율 전망



자료: Strategy Analytics 2012, KDB대우증권

2014년은 BYOD 수혜주에 주목해야 할 때!

공공부문 보안시장의 제한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용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보안업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4년 기업용 보안시장은 대형 휴대폰 제조사의 신 보안 모듈 탑재에 따라 BYOD 시장이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같은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이미 차세대 모바일 보안 모듈을 탑재하기 시작했으며 SK텔레콤과 VMware 등은 적극적으로 MDM 및 MAM 솔루션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B2B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모바일오피스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를 뒤로 하고 모바일 보안업체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보고서('스마트 시대를 프로그래밍하다'; 2013.9.10)에서 언급한 솔라시아(MDM, MAM 보안플랫폼을 개발중인 것으로 추정)와 시큐브(MDM 및 정보보안 전문업체) 외에 데이터보안 전문업체인 파수닷컴, 모바일보안 전문기업 라온시큐어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KDB대우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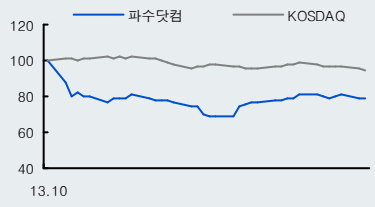
Company Report
2013. 12. 12

Not Rated

목표주가 (원, 12M)	-
현재주가(13/12/10,원)	5,560
상승여력	-

영업이익(13F,십억원)	4
Consensus 영업이익(13F,십억원)	
EPS 성장률(13F,%)	-9.4
MKT EPS 성장률(13F,%)	13.0
P/E(13F,x)	8.6
MKT P/E(13F,x)	11.1
KOSDAQ	494.78
시가총액(십억원)	44
발행주식수(백만주)	8
유동주식비율(%)	64.6
외국인 보유비중(%)	2.5
베타(12M,일간수익률)	0.31
52주 최저가(원)	4,660
52주 최고가(원)	7,470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9.0		
상대주가	9.0		



SmallCap

서승우
02-768-3080
seungwoo.seo@dwsec.com

파수닷컴 (150900)

스마트 시대의 데이터 파수꾼

데이터 보안 영역의 최강자

파수닷컴은 2000년 설립된 데이터 보안 전문 업체로 콘텐츠/기업문서 등의 정보유출 보안 솔루션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저작권 관리) 기술을 상용화했다. DRM 시장에서 2012년 기준 25.5%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유지관리를 포함한 DRM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신제품 매출 확대에 따른 완만한 비중 변화가 예상된다.

가상화 기술의 스마트 시대, 데이터보안 중요성 부각

2013년 3월 20일 언론기관과 금융기관 내부망을 뚫고 사이버테러에 사용된 지능형 지속공격(APT)으로 인해 현재 보안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와 함께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향후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영역을 넘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직접 암호화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서는 시스템 보안 영역이 줄어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보유출방지 보안시장은 2012년에 3,067억원 규모를 형성했으며 2016년 4,431억원을 기록해 연평균 12.1% 성장할 전망이다. 이 시장에서 파수닷컴이 주력으로 하는 DRM 시장 규모는 2012년 794억원에서 2016년 1,117억원으로 연평균 9.6% 성장이 예상된다.

파수닷컴은 독자개발한 암호화 모듈로 2천여 개 기업/기관에 대한 레퍼런스를 축적하고 있으며 업계 최다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위협에 따른 보안 영역 확대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데이터 보안의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또한 파수닷컴은 미주 지역 보안 시장 공략을 위해 2012년 2월 본토에 지사를 설립했다. 미국 보안 시장은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데이터 보안은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DRM 시장 성장에 따른 동사의 수출 비중 확대도 기대된다.

S/W(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시대 - S/W 보안 시장 형성 본격화

APT 등과 같은 사이버테러로 보안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S/W 품질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며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동적분석과 함께, 정적분석을 함께 적용하면 효율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파수닷컴은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S/W 실행 전 검사가 가능한 정적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정적분석기술을 통하면 코드 오류를 조기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약점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시간과 비용 단축이 가능해 향후 기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까지 전 공공정보시스템에 시큐어코딩(사전예방) 도입 의무화로 안정적 시장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며 파수닷컴은 2014년 1월 CC인증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 더욱 긍정적이다.

결산기 (12월)	12/10	12/11	12/12	12/13F	12/14F	12/15F
매출액 (억원)	156	161	203	240	281	326
영업이익(억원)	13	12	40	42	56	72
영업이익률 (%)	8.4	7.3	19.6	17.7	20.0	22.2
순이익(억원)	22	19	43	43	51	66
EPS (원)	369	322	715	647	771	989
ROE (%)	34.1	22.7	37.7	33.3	34.8	32.6
P/E (배)	-	-	-	8.6	7.2	5.6
P/B (배)	-	-	-	3.6	2.6	1.9

주: K-IFRS 개별 기준/ 자료: 파수닷컴, KDB대우증권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 보안 영역 확대

모바일기기 사용 확대에 따라 업무 환경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2014년에는 BYOD 시대가 본격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안 위협 증가에 따른 모바일 보안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파수닷컴은 MDAM(Mobile Data & Access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DAM은 DRM을 모바일로 확대 적용한 솔루션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저장데이터, 화면, 네트워크구간 등을 보호하고 서버접근을 제어시킨다. BYOD 환경을 도입하는 기업의 증가와 함께 동사의 모바일 솔루션도 본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수닷컴은 서버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사용자간 안전하게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SCD (Secure Cross Domain)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내부 사원이 사용하는 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인터넷 망분리 의무화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비록 인터넷 망분리 의무화가, 은행은 2015년 말, 금융기업은 2016년 말까지 연기되기는 했으나, 의무 기업들은 2014년부터 망분리 작업을 본격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클라우드 공동작업(Cloud Collaboration) 시장에 보안 물결이 인다

클라우드 공동작업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작업 환경을 말하며, Dropbox, Google Drive 및 Evernote 등이 서비스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클라우드 공동시장은 2010년 6억달러 규모에서 2016년 58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50%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해마다 크게 성장하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Dropbox 사용자 계정 해킹을 통한 문서 유출 사건이 불거지는 등 여전히 보안에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어, 향후 보안 정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보안상의 문제로 미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기업 내 사용금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틈새 시장으로 단순 암호화 보안업체가 다수 출현하고 있다.

파수닷컴은 2014년 미국의 클라우드 공동작업 보안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에서 운영 인력을 보강하고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있어 단순 암호화 솔루션을 넘어 DRM 선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수닷컴에게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이미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Google Drive, Dropbox, Sky Drive 등)에 호환 가능한 보안솔루션 디지털퀵(DigitalQuick)을 개발 완료하고 미주 법인을 통해 현지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에는 기업용 제품기능 강화로 B2B 시장에서 실적 가시화가 예상된다.

■ Snowball 효과: 안정적 공공매출과 보안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최대 실적 예상

파수닷컴의 2013년 실적은 매출액 240억원(YoY +18.2%), 영업이익 42억원(YoY +6.8%), 순이익 43억원(YoY -)이 예상된다. 정보보안 시장 성장과 함께 DRM 시장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유지보수 매출인데, 2013년 동사의 유지보수 매출은 전체 매출의 14.8%(YoY +1.3%p)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보수 매출은 동사 실적의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써, 고객 수 증가에 따라 유지보수 매출 비중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영업이익은 인력 채용과 사옥 이전 등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로 2012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보안 산업 내에서 투자 집행을 늘려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돼 이익률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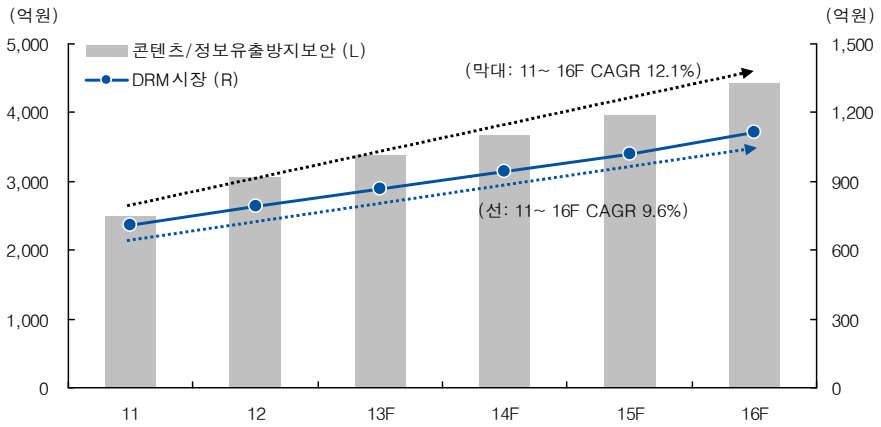
2014년 실적은 매출액 281억원(YoY +17.1%), 영업이익 56억원(YoY +32.8%), 순이익 51억원(YoY +19.3%)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림 12. 파수닷컴 레퍼런스 – 업계 최대로 약 2천여 개 기업에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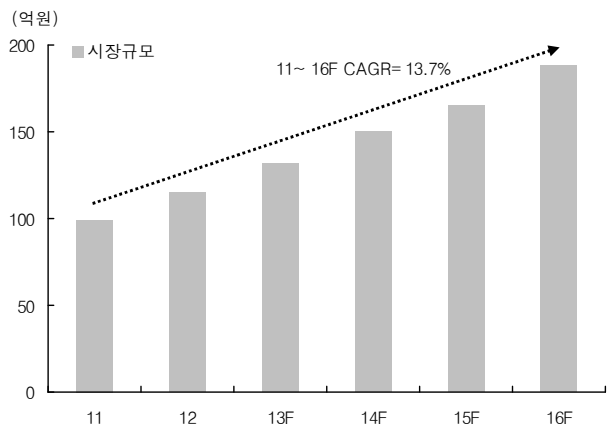
자료: 파수닷컴

그림 13. 파수닷컴 주력 사업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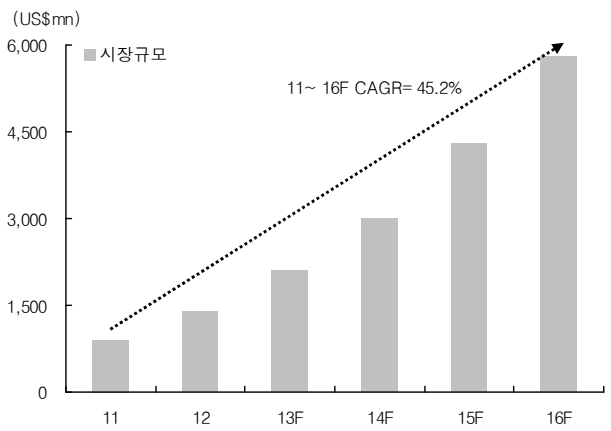
자료: KISA, 파수닷컴, KDB대우증권

그림 14. 취약점 분석툴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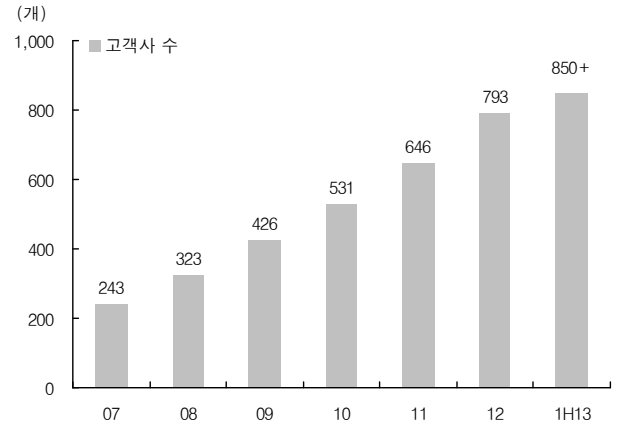
자료: KISA, 파수닷컴, KDB대우증권

그림 15. 글로벌 클라우드 공동작업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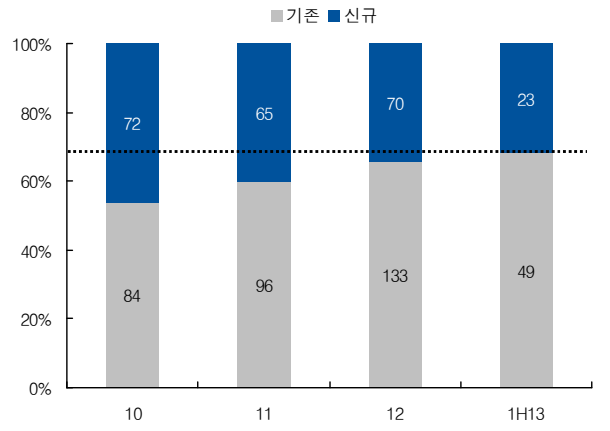
자료: Forrester Research, 파수닷컴, KDB대우증권

그림 16. 파수닷컴 고객사 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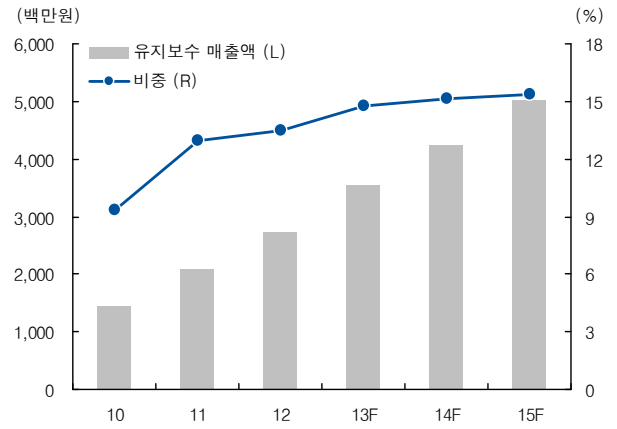
자료: 파수닷컴, KDB대우증권

그림 17. 기존/신규 고객사 매출액 비중: 약 7대 3의 비율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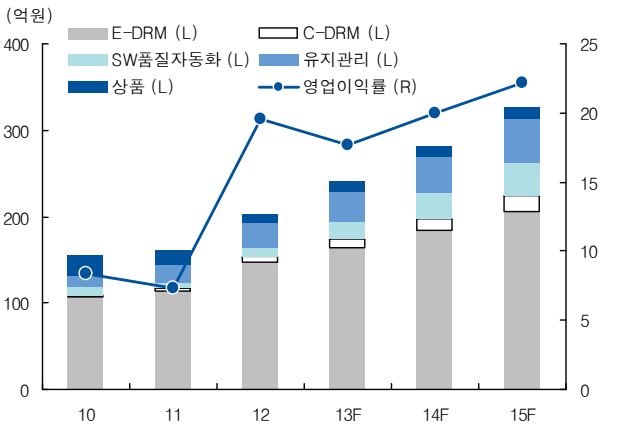
주: 막대 안의 숫자는 매출액이며 단위는 억원
자료: 파수닷컴, KDB대우증권

그림 18. 파수닷컴 유지보수 매출액 및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파수닷컴, KDB대우증권

그림 19. 사업 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파수닷컴, KDB대우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